

영화로 되살아난 5·18 40돌

‘김군’ ‘택시운전사’ ... ‘오월 영화’는 끝나지 않았다

“광주민중화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낸 5·18은 현재 온전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영화운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오월광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희망합니다.”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는 조대영씨는 ‘광주에서 영화 좀 봤네 소리를 들으려면 조대영을 통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영화 마니아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광주에서 영화를 한다고 마음 먹는다 건, 영화로 5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어떻게 하면 5월 관련 영화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기에 5·18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생각보다 낮다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조대영씨가 추천하는 ‘끝나지 않은’ 5월 영화를 되돌아보며 오월광주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영화인 조대영씨가 추천하는 5월 영화

‘꽃잎’ ‘부활의 노래’로 광주민중화운동 의미 되새겨

‘실종’ ‘그날’ ‘오월애’ ‘힌츠페터 스토리’ 독립영화도 볼만

#김군(강상우 감독, 2019)

5·18 광주민중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전면에 세운 첫 다큐영화다. 1980년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무장 항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광주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그 시절의 기억과 기록을 집요하게 소환한 작품이다. 그동안 오월광주를 다룬 영화 가운데 완성도 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영화에서 보듯, 지난월이 5·18 당시에 북한 간첩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다. ‘김군’은 그걸 하나하나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지난월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8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감독이 5·18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다.

#부활의 노래(이정국 감독, 1991)

광주 출신 이정국 감독이 만든 ‘부활의 노래’는 상징적인 5월 영화다. 광주민중항쟁이 발발한 지 10년 후에 찾아온 영화로, 아직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사회적 기운이 존재했던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노래’는 ‘오월광주’의 복판으로 들어간다. 영화가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낸 건 검열과정에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윤상원 열사가 도청 안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던 80년 5월 27일 새벽 장면이 편집된 상태로 개봉됐다. 감독 입장에서는 고심해서 찍은 장면의 삭제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꽃잎(장선우 감독, 1996)

최운 작가의 소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다. 군대에 간 아들의 의사로 인해 반정부시위에 참여하게 된 평범한 시장 상인이던 어머니. 그날은 바로 1980년 5월 22일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던 날이었다. 어머니는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고, 현장에 있던 소녀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미쳐버리고 만다. ‘꽃잎’은 소녀의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한다. 5·18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15살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5·18과 관련된 영화 중 가장 아프고 슬픈 영화로 평가받는다.

#택시운전사(장훈 감독, 2017)

개봉 19일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서 ‘택시운전사’는 역대 ‘오월광주’를 다룬 영화 중 흥행면에서 단연 최고로 꼽힌다. ‘택시운전사’의 가장 큰 미덕은 영화의 주인공을 광주와 연관이 없는 외부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택시운전사인 주인공이 우연치 않게 광주의 학살을 목격하는 것으로 설정해 차별화를 꾀했다. 독일 기자인 힌츠페터를 등장시켜서 항쟁 당시 언론의 작태와 광주의 진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공을 들인다.

#독립영화 4선

‘실종’ (박성배 감독, 2009)은 5·18민중항쟁의 24년 후의 모습 혹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2004년 제5차 보상법에 맞춰 보상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5·18행방불명 가족회의 행보를 따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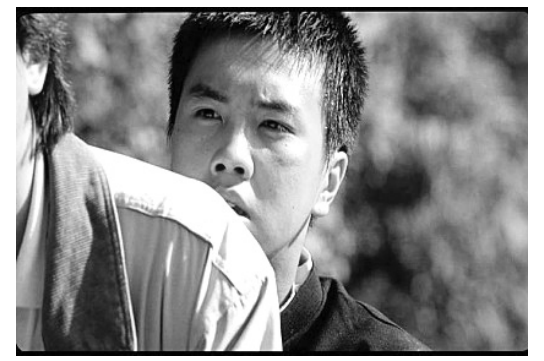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



영화 ‘김군’



‘부활의 노래’



‘그날’

다. 이들의 발걸음을 추적하다 보면 관계당국의 뿌리깊은 관료주의와 보신주의의 벽을 실감하게 되고, 행방불명된 가족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행불자가족들의 사무친 절실함과 만나게 된다.

‘그날’ (조재형 감독, 2008)은 5·18민중항쟁 기념 제3회 서울 청소년백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詩)정민경의 ‘그날’을 원작으로 했다. 시는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화자(話者)가 고백체 형식으로 들려주는 오월의 어떤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어난 삽화 한토막이다. 시의 화자가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가장으로 영화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살아남은 자의 염치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월애’ (김태일 감독, 2011)는 민중의 입장에서 ‘오월광주’를 기록한다. 30년 동안 역사의 주인이었지만 주인이 아니었던 기층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영화다. 영화에 등장하는 40여명의 인터뷰어가 인상깊은 것은 이들에게서 항쟁 당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물론 그들의 현재 삶까지를 비추듯 답해주기 때문이다.

‘5·18 힌츠페터 스토리’ (장영주 감독, 2018)는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독일 기자 힌츠페터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KBS PD였던 감독은 힌츠페터에 관한 다큐를 만들기 위해 독일로 갔고 그렇게 만들어진 방송물은 2003년 5월 18일 방영됐다. 이후 방송을 보완해 내놓은 다큐가 이 영화다. 항쟁 당시 광주의 모습을 담은 힌츠페터의 촬영 영상과 힌츠페터와의 인터뷰, 힌츠페터와 연관된 사람들의 인터뷰가 주를 이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에 영화도서관 만들어 비디오·DVD 등 공유하고 싶어요”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 조대영씨

“영화도서관을 만들어서 제가 모은 비디오와 DVD, 책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화 정보들을 얻고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문화도시 광주라면 영화 도서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인 조대영(51·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씨에게는 ‘보물창고’가 2곳이나 있다. 비디오 테이프가 가득한 계림동 보물창고와 책과 DVD를 가득 모아놓은 산수동 보물창고다.

계림동 창고에는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5만 여개가 빼곡이 쌓여있다. 진열장 150개 가득 비디오가 꽂혀 있고 미처 진열하지 못한 건 바닥에 쌓여있다. 사실 지금은 그 수가 너무 많아 정확히 몇 개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상태다. 그 중 3000여 장은 현재 광주극장 ‘필름 정거장’ 문화행사 코너에 전시돼 있다.

산수동에는 2만여권의 책과 2000장 정도의 DVD가 보관돼 있다. 도서는 영화의 자양분이 되는 책 위주로 모은다. 소설이나 시, 만화, 그래픽 노블, 이미지, 그래픽, 사진이나 그림 관련된 책이나 인문학 서적, 영화 관련 책도 많다. 일반인들이 라면 육십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간들은 그 가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준다.

오래된 서점을 찾아다니는 건 조씨에게 일종의 취미가 됐다.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갈 때면 시간을 내어 중고책방을 찾아가기도 한다. 조씨의 창고에 없는 책을 발견하는 날은 진짜 보물을 찾아낸 듯 짜릿하기까지 하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기에 가족들의 반대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래된 꿈을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다.

“계속해서 영화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니까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도서관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이나 부산 시네마테크에도 영화 관련 책이나 DVD는 많이 있을 테지만 제가 보관 중인 자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료는 충분하지만 당장 도서관을 만들지 못하는 건 역시 공간 때문이다. 혼자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한 상황이다. 상업적인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비디오나 책들을 금액으로 산정한 적은 없어요. 할 수도 없구요. 언제까지고 자료만 모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영화도서관을 열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3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마이 스파이, 호텔 레이크
4관	라라랜드, 1917, 알리타: 배틀 앤젤
5관	마이 스파이, 호텔 레이크
9관	레이니 데이 인 뉴욕, 프리즌 이스케이프, 마션
7관 씨네커를	패왕별희 2 오리지널, 호텔 레이크 리벤지
8관 씨네커를	저 산 너머, 나의 청춘은 너의 것, 헌티드 파크, 슈팅월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7. (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즐거움
문화
산책